

앞만 보고 달려 온 말·인간들에 건네는 위로



서울과 지역배우들이 협업한 음악극 '홀스토펠레' 리허설이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악극 '홀스토펠레' 리허설 현장

무대 위, 젊고 늙은한 말들 사이로 다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말'이 말뚝을 잡고 간신히 서 있다. 젊은 말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한다. '다른 놈들과 항상 어울리지 못하는 얼룩배기 거세말'은 뼈만 앙상하고,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 늙은 말의 얼굴엔 회한이 서려 있다.

"늙은 건 품위가 있든지, 꼴사납든지 이고", "늙음은 추하거나 중후하거나 둘중의 하나"라는 노래와 대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라이브 연주에 맞춰 전해지는 '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인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사들은 관객들을 뜨겁게 만든다.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음악극 '홀스토펠레' 리허설 현장은 열기가 넘쳤다. 30분간 주요 대목을 보여주는 짧은 공연이었지만 말들의 특징을 잘 포착한 배우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앙상함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홀스토펠레 역을 맡은 유인촌이 노년과 젊은 시절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며 극을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 때 촉망받는 경주마였으나 지금은 늙고 병든 말의 입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홀스토펠레'는 톨스토이 중편 소설 '어느 말 이야기'를

연출·주연 맡은 유인촌 극 이끌어

서울·광주 배우들 어울려 구슬땀

노래·춤 더해 무거운 주제 풀어내

9~11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공연

각색한 작품이다. '홀스토펠레'는 러시아어로 얼룩말이라는 뜻으로 인간과 그들이 만들어간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재미있는 우화다.

흥겨운 음악속에 전개되는 작품의 주제는 '묵직 하지만'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등 극을 풀어내는 방법이 무겁지만은 않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또 라이브 연주는 바이올린, 피아노, 드럼, 더블베이스의 단출한 구성이지만 극과 잘 어우러지며 작품 보는 재미를 더한다.

'홀스토펠레'가 새로운 옷을 입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9일(오후 8시), 10~11일(오후 6시) 예술극장 2.

지역협력연극으로 준비한 이번 작품은 서울 배우들과 오디오션을 통해 선발한 지역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색다른 시스템으로 제작됐다. 노래, 연기, 춤이 어우러지는 음악극 형식의 작품인데다 '말'이

주인공인터라 배우들에게는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했다. 말들의 움직임과 승성 등을 분석하며 캐릭터를 만들고, 말들의 동작을 익히고,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극을 완성해 나갔다. 작품 속 대사들은 많은 생각거리를 들려준다.

"예전에 공연할 때 나이 든 관객들은 눈물을 보이시곤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는 관객들도 있었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작품을 보여주냐' 말하던 이도 생각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어떤 분은 이 작품에서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섰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사랑과 질투, 배신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겁고 힘든 주제지만 '말'을 등장시켜 우화식으로 만들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홀스토펠레' 속에는 삶과 죽음, 사랑과 고통, 아름다움과 추함, 젊음과 늙음이 온전히 녹아 있다. 작품 마지막 부분, "한때는 참, 괜찮은 말이었는데"라는 대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열심히 죽어라 달려온 세상의 말들과 인간들은 이제 늙고 병들어 "아무에게도 필요 없고,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상황들에 딱딱뜨리게 된 지도 모른다.

만 12세 이상 관람가.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1899-5566. www.acc.g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홀스토펠레' 참가한 지역배우들

7일 리허설 공개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지역배우들과 연출가 유인촌씨가 참석했다.

"이번 작품 제작은 모험이었죠. 오히려 외국팀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거나, 외국 연출자와 협업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역과 서울 배우들이 장기간 협업한 사례는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출연자가 많다 보니 연습 스케줄 짜는 것도 어려웠죠. 지역과서울 배우들이 함께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간 셈입니다."(유인촌)

"서울 배우들과 협업...지역 연극 새바람 기대"

지역에서 참여하는 배우는 모두 7명. 광주교육대학생으로 관객이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 참여한 이한선, 리허설에서 특기를 십분 살려 민첩한 몸놀림을 보여준 발레 전공자 정수원,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소감을 밝힌 퍼포먼스 그룹 데블스 멤버 이해원씨 등은 연극 출연이 처음이었다.

반면 광주시립극단 작품에 출연한 이명덕, 최민석

씨와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나상문씨는 배데랑 연극인이다. 목포에서 20년간 연극배우로 활동한 나씨는 "이번 작품이 지역 연극에 새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립극단에서 활동하는 장은희씨는 "1년전 '홀스토펠레'를 보고 나도 저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간첩조작 사건 다룬 다큐 '자백' 시사회

10일 광주극장서

최승호 감독

관객과의 대화도



2012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감독 최승호) 시사회가 10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 영화는 국정원에 의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내몰린 사건을 다뤘다. 당시 국정원이 내놓은 명백한 증거는 유우성씨 동생의 증언 '자백'이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국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선다.

영화는 최승호 감독이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 간 추적 끝에 드러나는 스파이 조작 사건의 실체를 담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거침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시도하는 모습을 삽입해 깊은 인상을 남긴다.

MBC PD 출신 최 감독은 PD수첩 연출을 맡아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보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2012년 해고된 이후 비영리 대안 언론 '뉴스타파'에서 활동할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최감독이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723-93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가을호 출간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가을호(통권 20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는 추석을 앞두고 특집 기사로 '전라도 시·군 대표 마컬리'를 준비했다. 마컬리에 얽힌 추억과 변천사, 광주 무등산 탁주와 비아 마컬리, 함평 월야, 나주 다도, 영광 대마, 화순 백야산 마컬리 등 각 지역 대표 마컬리를 소개했다.

현재의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목사를 120여명 배출한 비금도 탐방 기사 '목사의 섬이라고 불러주세요' 등을 실었다. 전라도 대표적인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인문학 산책을 하는 '전남의 마을 1박2일' 코너에서는 학포 양광순과 조광조 선생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화순 능주 달야실과 쌍봉을 찾았다.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아흔 넘어 인간학을 강의하는 조용기 학교법인 우암학원 학원장을 '100세 시대를 모델'로 만났다.

그밖에 조용한 칼럼, 광주시 오페라단 창단을 위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준비 이모저모, 서양화가 김종일 교수의 남미스캐치 여행 등을 다뤘다. 문의 062-226-1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10일 플리마켓 '박장대소' 개장

광주 고려인 마을 민속춤 공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이 박물관 문화예술시장 플리마켓 '박장대소(拍掌大笑)'를 10일 정원과 대강당에서 개장한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박장대소'는 지역 문화예술작가와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수제 생활용품, 먹거리, 중고 물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참여한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고려

인 마을 무용단이 중앙아시아 전통 민속춤 공연을 선보이며 전통 뿔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오후 4시에는 광주·전남 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 YMCA 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가을 클래식 재능기부 공연을 선사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해 이메일(gylilove@naver.com) 또는 팩스로 (062-570-7066)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김용희기자 kimyh@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